

부처님 가르침은 '상호연결 공유사회 구축'

불광연구원 '공유사회와 불교역할' 봉축 세미나

날이갈수록 지구의 자원은 고갈되고 세계경제도 성장의 한계에 처해있다. 이제 무한생산과 소비에 뿌리를 둔 삶의 양식에 대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이런 시각에서 일고 있는 공유운동은 '열림과 나눔의 삶'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공유 운동에 대한 불교사상적 고찰이 진행돼 화제다.

불광연구원(책임연구원 서재웅)은 5월 2일 서울 잠실 불광사에서 '공유사회와 불교의 역할'을 주제로 봉축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안진환 인트랜스 대표의 '공유경제의 논리와 공유사회의 미래' 발표를 비롯해 차차석 동방문화대 교수의 '불교사상과 전통을 통해 본 공유사회', 유정길 지혜협동조합 이사장의 '협력적 공유사회를 향한 변화와 무소유사회' 등 발표가 진행돼 관심을 모았다.

2050년 공유사회 도래

안진환 인트랜스 대표는 "협력적 공유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를 대체하며 서서히 부상하고 있으며 2050년 경 세계 대부분의 경제생활에서 결정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상호의존성이 높아지는 글로벌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은 필수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안 대표는 "자본주의의 경쟁과정이 극단적 생산성으로 이어지면 0에 가까운 한계비용을 갖게된다"며 "이미 출판시장에서 전자책 형태로 이러한 것이 나타나고 있

며, 인터넷의 정보 또한 이러한 제로 한계비용의 증거"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물리적 재화와 서비스 뿐만 아니라 녹색 에너지까지 제로의 한계비용으로 생산해 낸다면 이것이 바로 공유사회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러한 증거를 전통적인 농촌사회에서 찾았다. 안 대표는 "시골에서는 토지와 물, 산림 등 공유자원을 공동관리하며 토지수용과 경작 등도 사회구성원이 민주적으로 내린다. 또 공동체 규범과 그에 따른 관례도 정립돼있다"며 "이제는 인터넷 환경에 자라난 아이들이 예전 농촌구성원과 같이 함께 네트워크를 공유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결국 남은 문제는 누구든 너무 늦기 전에 경제적 사회적 가능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소중한 가치인 인류애를 확대하는데 일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기불교서 공유사상 고민해

차차석 교수는 '불교사상과 전통을 통해 본 공유사회'에서 "초기불교 이래 불교사상가들은 공존과 조화의 방법을 통해 개인적 인 욕망을 해결하고자 했다. 공유사회의 추구는 불교의 근본정신과 같다"고 진단했다.

차 교수는 공유사회의 가장 극명한 예로 승가제도를 들었다. 차 교수에 따르면 불교도들은 승가를 사회개혁의 전진지기로 활용해 출가자 출신성분을 따지지 않으며 의사결정 또한 만장일치제를 채택하는 등 공



안진환 대표 차차석 교수 유정길 이사장

유사회의 모습을 띄게 했다.

차 교수는 현대사회에서 불교적 공유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연기론과 공업증생이란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교수는 "현실적으로 개인주의와 자본주의 심화 속에 인간 외면과 소외현상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그렇기에 관계와 공유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불교적 실천은 공업 증생관을 통해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차 교수는 또 "부처님께서 말한 물질적 공유 뿐만 아닌 윤리적, 정신적 공유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유사회에서 구체적인 실천규범과 사상적 배경을 불교가 제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찰을 지역 공유센터로 육성

우버택시를 비롯한 다양한 현대사회의

공유문화를 소개한 유정길 지혜협동조합 이사장은 "자본주의가 지속될수록 가난한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가난한 사람끼리의 결합과 협력, 협동 밖에 없다"며 "약자들끼리의 협력을 위해서는 공동체 내에서 욕망을 줄이고 나눔과 베풀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부처님의 무소유 정신은 인류가 지향해야 할 궁극의 가치"라며 "협력적 공유사회는 미래사회의 방향이 무소유사회로 접근하는 한 지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또 "불교계에서는 각 신도나 수행단체에서 물건과 책, 옷, 주차장 등부터 공유하는 일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찰을 지역에서 공유센터의 거점으로 만들어 공동체의 촉매제가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지역주민 위해 문화재 주변 관리기준 완화

문화재청장 허가 받지 않는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확대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5월 8일부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등 허가 시 문화재청을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바로 허가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의 범위를 확대 시행했다.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전에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별도 고시하는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는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하고 있다.

이에, 문화재청은 현상변경 허가 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덜고자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의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했다. 이번엔 새롭게 포함된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는 △재해복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등 안전 관리를 위한 행위 △고사목(죽은 나무) 제거, 장애 인 편의시설 설치 등 문화재 보존·활용

가치 증대를 위한 행위 △농로 개설·정비, 생업용 지하수 개발, 농업용 용·배수로의 상·하수관, 전기·통신관로 매설·정비 등 문화재 주변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행위 등이다.

앞으로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하게 되어, 신청에서 허가까지 걸리는 기간이 약 30일에서 10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한편, 각종 사고와 환경오염 등의 위험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되었다. 현상변경 허가 후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에는 별도의 예외사항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바로 허가하였으나 이제부터는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용도변경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에서 제외된다.

또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내에서의 행위는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에서 제외하도록 명문화했다. 노덕현 기자

"고려시대 사천은 특별한 광역시"

송도근 사천시장, 5월 1일 사주 승격 학술세미나서

'고려시대 사주(사천)는 불교문화를 기반으로 지금의 세종시와 같은 특별히 지정된 광역도시'라는 주장이 나왔다.

사천문화원은 5월 1일 사천공영장에서 '사천시 사주 승격 1000년 역사적 고증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통합 사천시 20주년을 맞아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인 '사주' 승격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전년대 변동명 교수의 '고려현종과 사수현·사주'와 이경화 문화재청 문화재 감정부원의 '사천의 불교문화'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송도근 사천시장은 "그 시대 주(州)의 성격이 속현이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세종시도 특별시이지만 구(區)가 없는 독특한 형태가 존재하듯 그 시대에도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노덕현 기자



"염불선은 불교의 근본 수행법"

5월 1일 청화사상연구회 세미나서 학자들 주장

현대 한국불교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수행행위의 방법인 염불이 선정에 이르는 부처님 당시의 고유한 수행법임을 알리는 자리가 열렸다. 청화사상연구회(회장 박선자)는 5월 1일 동국대에서 '염불선 사상의 역사적 고찰과 그 발전과정'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염불선은 일반적인 칭명염불을 넘어서 자기 마음속에 부처가 있음을 느끼고 깨달음에까지 이르는 방법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조준호 고려대 철학연구소 박사는 '염불선의 선정계위' 주제발표를 통해 "부처님 당시와 초기경전에는 염불이 곧 선정이라 할 정도로 위상이 높았다"며 "하지만 부파불교시대를 거치며 염불선정의 가능성과 여지가 봉쇄되고 굴곡졌다. 이러한 염불선 수행을 한국불교에서 복원시킨다면 현재 간화선 일변도의 폐해

를 보완하는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박사는 "청화선사는 염불이 곧 선정으로, 더 나아가 선정계위를 밝히고 있다. 이는 동아시아 전통의 정토종 칭명염불과는 다른차원으로 기본적으로 소리를 내어 말하는 발호로 선정의 단계로 발전할 수 없다는 부분을 넘어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영섭 동국대 교수는 이러한 청화 스님의 염불선이 고대 한국불교에서는 원효 스님의 정토사상으로 근원이 있다고 밝혔다.

고 교수는 "정토와 염불선은 유심정토와 정토를 이 땅에 구현하려는 점에서 하나로 회통한다"며 "원효 스님은 정토왕생을 위해 심미 염불을 제시하고 보조적인 수행법으로 임종 이전 지심염불을 강조해 하품의 중생까지 받아들였다. 청화 스님은 실상염불로 바로 들어가 칭명, 관상염불 등을 회



통하는 염불임을 밝히고 있다"고 비교했다.

고 교수는 "원효와 청화 스님은 모두 염불을 통해 '우리 마음의 뿌리인 부처'로 돌아가게 하고자 한 점에서 시대정신과 역사 의식을 읽어낼 수 있다"며 "이러한 것은 보다 많은 사람이 불교를 접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며 오늘날 한국불교는 이러한 것들을 미래를 환기해가는 자량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미나를 주최한 백산문화회 회장

용타 스님은 "한국불교의 현실을 돌아보면 간화선에 비해 염불선을 비롯한 다른 수행은 빙산의 일각으로 자리해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끝으로 "그 무엇보다 청화 스님은 염불선의 가치를 높이는 했으나 문문 가입(어느문이나 들어갈 수 있음)을 통해 가치관 다원주의의 관점을 선호하셨다. 불교사 차원에서 염불선을 연구하고 실천할 수하는 분위기가 형성됐으면 한다"며 불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조준호 박사

울산박물관, 영축사지 동탑 조사 본격 착수

울산박물관(관장 신광섭)은 4월 29일 통일신라시대 울산 불교문화의 위상을 입증한 '울리 영축사지'의 4차 발굴조사 착수를 알리는 고유제를 개최했다.

고유제는 영축산(靈鷲山) 신령님께 동탑 조사 시착을 고하고, 조사 기간 동안 무사안녕의 염원과 영축사 실체를 밝힐 수 있는 가치 있는 유물 발견 등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번 4차 발굴조사에서는 동탑 조사가 진행된다. 울산박물관은 현재 허물어져 있는 동탑 부재를 정밀 조사하고 각 부재를 3D 스캔하여 복원된 모습까지 추정할



계획이다. 또한 탑지 하부조사를 통하여 석탑 조성 과정과 시기를 밝혀 영축사가 람과의 관계 규명을 위한 조사도 진행한 다. 노덕현 기자

단, 98만원에 법당의 앰프 + 대출력 스피커 + 구즈넥 탁상 마이크 등 최고급 신형 장비로 교체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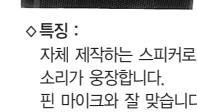
- 기간 : 선착순 30개 사찰
- 신청방법 : 계약금 30% 입금 후 휴대전화로 희망일자 및 주소, 사찰명을 정확히 문자로 보내주시면 예약 순서대로 설치 일자 및 방문 시간은 스님과 협의해 결정 합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고급 앰프케이스 무료 보시 합니다.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먼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285,000원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내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전국에 계신 주지 스님께

저는 서울 인당역학연구소를 운영하는 강원장입니다.

학원을 13년간 운영하였으나 최근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산으로 들어 가려고 하는데 절을 운영하신 주지 스님께서 제가 필요로 하는 사찰이 있다면 제게 연락 좀 주세요.

저는 사주·기문둔갑·자미두수·육효·풍수지리·타로 등 여러 학문을 섭취하고 기도 올리는 법, 49제 올리는 법 등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절대로 사찰에 피해는 안줄 수 있는 사람이니 필요로 하는 사찰이 있다면 저에게 연락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 "인당명리" 치면 됩니다. 신상명세서를 보면 됩니다.

전화번호 : 010-2224-6310